

광주시, '김대중 탄생 100주년 특별음악회' 연다

오는 17일 전남대 민주마루 대강당 '미래를 향하여' 주제로 업적 기려 ACC시민오케스트라·성악가 협연 추모 전시회·드라마 콘서트 다채

고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과 서거 15주기를 기념하는 특별음악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오는 17일 오후 5시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대강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특별음악회를 개최한다.

광주시는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서거 이후

매년 추모식을 열고 있으며, 지난 2019년부터는 추모 음악회와 전시회 등을 거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음악회는 '미래를 향하여'를 주제로 광주시, 전남대학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김대중광주추모사업회가 주관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운영하는 생활예술음악인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된 교향악단인 ACC시민오케스트라가 출연해 의미를 더한다.

ACC시민오케스트라 공연은 김병무 지휘자와 나혜숙 소프라노, 윤병길 테너가 협연한다. 또 솔리스트양상블(임해철 외 10명), 아버지 합창단(윤원중 지휘자

외 40여명)도 출연한다.

이들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을 비롯해 '최영섭의 그리운 금강산', 푸치니 오페라 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 나의 태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베르디의 축배의 노래', '김효근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손목인의 목포의 눈물', '메토벤 9번 교향곡 중 환희의 송가' 등을 연주한다.

이번 음악회는 무료 공연으로, 시민 누구나 티켓링크 누리집(www.ticketlink.co.kr)에서 1인당 최대 4매까지 예매해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민주보훈과(062-613-2065)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문화재단은 연계 행사로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드라마 콘서트 '평화의 별, 통일의 강-인동초 사랑'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고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드라마 콘서트' 형식의 작품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를 번사 이황의 해설과 함께 바리톤 고성현, 테너 장주훈, 소프라노 권로, 가수 신형원, 소리꾼 이영태 등이 무대를 꾸민다. 여기에 코리아모던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인동초 사랑 합창단이 협연한다.

공연은 만 7세 이상부터 관람이 가능하

며 홍보물에 나온 QR코드를 통해 1인당 최대 4매까지 예매를 할 수 있다. 5인부터는 광주문화재단 예술누리팀(062-670-7443)으로 예매하면 된다.

동구 공동 향담갤러리에서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고 김대중 대통령 추모 전시회 '당신이 그림습니다'를 연다. 서기문·조현수 작가의 고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역사화, 사진 등 50점을 관람할 수 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시민들이 이번 음악회를 통해 김대중 정신을 잇고 잘사는 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함께 해줄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전남도, 불법 무면허 김양식어업 단속 강화

전남도는 양식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어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무면허 김양식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김값 상승으로 무면허 김양식 어장이 확산되면서, 자리 선점을 위한 불법 김양식 시설 조기 설치가 현실화됐다. 무면허 양식시설에 따른 어선어업의 조업 구역 축소, 항로 침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및 민원 증가 등으로 업종 간 분쟁과 갈등도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무면허 양식시설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0개 연안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 양식시설 설치행위

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는 소유자 파악이 힘든 불법 시설물은 게고 후 신속하고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할 방침이다.

또한 무면허 양식으로 발생한 수익이 환수되도록 해당 검찰청에 처벌 강화를 건의하고, 단속 후 불법시설 자진 철거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재입건하는 등 불법 양식행위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민간 주도형 어장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을 활용해 조업정보 동향과 불법 시설물 설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어업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양식 어업인 교육·설명회도 이달 중 개최한다.

오지현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문인 북구청장, 주민 등이 12일 북구 오치주공 1단지 아파트 내 유희공간에서 오치 복합 커뮤니티센터 개관식을 갖고 기념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센터에는 통합돌봄센터, 스터디 카페, 주민 공동작업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마련됐다. 나건호 기자

광주시,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

오치주공1단지 유희공간에 조성 통합돌봄센터·육아나눔터 갖춰

광주 아파트단지 한 가운데 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주민을 위한 '돌봄과 소통'의 공간이 활짝 열렸다.

광주시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오치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 마무리돼 12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문인 북구청장, 정수미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안평환·정다는 시의원, 임종국 북구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지역의 쇠퇴지역

등 구도심에 주민 생활편의 시설을 조성해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북구, LH와 협업해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참여해 선정됐다. 고령화 및 도심 쇠퇴가 심화하고 있는 북구 오치권역에 주민의 복지·문화·체육시설 충족을 위한 복합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50억원, 시비 25억원, 구비 25억원)이 투입된 오치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는 오치주공1단지 내 유희공간에 지상 3층 연면적 2683.3㎡ 규모로 조성됐다.

내부 공간은 1층에 주민카페, 실내놀이

터, 공유주방, 노인통합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2층에 스터디카페, 프로그램실1, 주민공동작업장, 3층에 다목적 체육관, 프로그램실2 등 주민들이 함께 복지·문화·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갖췄다.

강기정 시장은 "오치복합 커뮤니티센터 1층에 마련된 돌봄공간은 광주다운 통합돌봄과 맞닿아 있다"며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돌봄으로 확장된 통합돌봄 시즌 2처럼 이 돌봄공간에서 서로 만나고 연결되는 일이 다양하게 벌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동구 산수동, 남구 양림동에 추가로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전남도, 지역 인기 체험상품 '반값할인' 출시

전남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인기 체험상품을 정가의 50%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1+1 블루투어 특별행사를 출시했다.

1+1 블루투어 특별행사는 전남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남관광플랫폼(JN TOUR) 앱을 통해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현재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뉴문마리나 요트체험, 여수의 녹테마레, 플로팅마리나와 아그리나 요트체험, 바다루지, 담양의 달라이트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행사 기간 할인상품은 지속해서 추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휴가철 전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블루투어 체험상품 프로모션을 운영, 30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더불어 전남관광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상품을 1+1 할인 제공해 많은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전남도는 '1+1 블루투어' 상품 외에도 '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 '고향애(愛) 여행가자' 상품을 출시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관광플랫폼(JN TOUR)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응급처치 교육기관 인증

광주시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안전체험전문교육기관'으로 인증받아 이달부터 응급처치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응급처치 전문교육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행정안전부 지정)'과 '일반인 심폐소생술 기초·심화 과정(대한심폐소생 협회 인증)'으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3층 응급안전 체험구역에서 진행한다.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지난달 30일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증받아 체험관 3층 응급안전 체험구역에서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아 심폐소생술,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처치 등의 응급처치 실습을 진행하며, 매월 둘째·넷째주 화요일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운영한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기초·심화 과정은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 처치법 등을 배울 수 있다. 기초과정은 매월 둘째주 금요일(오후 3시30분), 심화과정은 매월 넷째주 금요일(오후 2시)에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범 기자

오는 10월 만료...정부·국회에 요청 합동추념식 등 전국화 사업도 매진

전남도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순사건지원단은 지난달 27일 동부청사에서 열린 신정훈(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과 여순사건유족·관련단체 간담회에서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 수집 및 분석 기한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라 기한 연장 등 여순사건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지난 1일 전남지역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순사건 조사 법적 기

한 연장과 중앙위 차원의 신속한 희생자 유족 결정 협조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깊이있는 진상규명과 온전한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당면 과제임을 감안, 올해 초부터 지속해서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결정 사건 희생자에 대해 별도의 사실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결정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진화위 통보 758명에 대해 직권결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9%대인 희생자 최종 결정 심사율을 올 연말 약 20%까지 두 배 이상 끌어 올려 고령인 유족의 오랜 염원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 전국화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19일 보성군 공설운동장에서 유족, 정부인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6주기 합동추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현재 추념식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행사 선정, 부대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순사건의 아픔을 문학작품으로 승화해 평화와 인권의 상징 토대 마련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공모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월 공모작 심사 후, 10월 합동추념식 추모 기간과 연계해 시상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